

2022년 한국교회 목회 키워드, 소그룹

지난 2년간 코로나19가 한국교회에 미친 파급력은 막대하다. 사회 전 영역에서의 비대면 문화 확산과 더불어 온라인 예배의 확산은 말할 것도 없고, 개신교인들의 신앙활동 전반에 있어 양적·질적 변화를 가져왔다. 이제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다. 그렇기에 새해에 대해 희망보다는 걱정과 두려움이 더 많은 것 같다. 마땅한 대안도 헤쳐나갈 목회적 방법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

우리 연구소는 2022년 한국교회 목회 키워드를 ‘소그룹’으로 선정했다. 3040세대의 저조한 현장예배 참여율, 온라인예배의 일상화, 밖으로는 ESG로 대표되는 기업의 변화 등 교회 안팎의 환경적 변화를 고려할 때 코로나 이전으로의 회복이 아닌 본질로의 회복, 공동체의 회복을 목표로 한다면 이 모든 목적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대안으로 ‘소그룹’을 생각했다.

점점 더 쉽지 않은 환경 가운데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지표의 한 꼭지로 <넘버즈> 127호에서는 소그룹 활동을 진단해 보고자한다. 소그룹 활동자와 비활동자의 교회생활, 신앙생활, 신앙인식 등을 비교 분석하여 코로나 상황에서 한국교회의 소그룹 활동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규명하는 작업을 해 보았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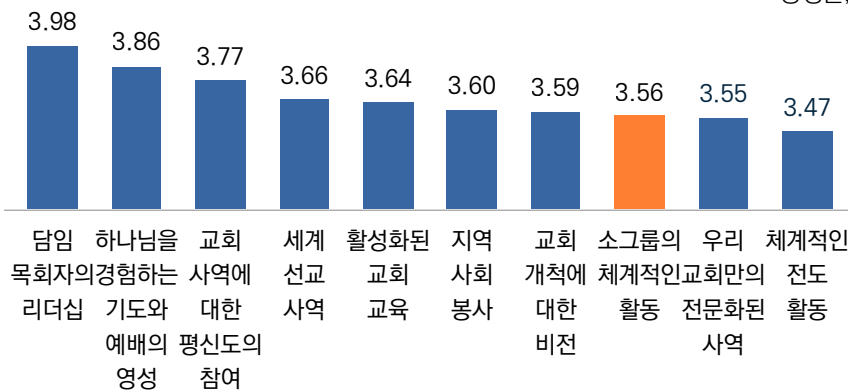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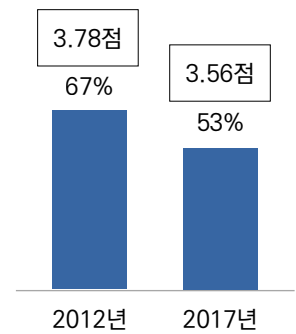
코로나 이전부터 성도들의 소그룹 니즈(needs) 불충족!

- ▶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의 '2018 한국기독교 분석 리포트(2017년 조사)'에서 나타난 개신교인들의 출석교회 항목(10개)별 만족도(5점 만점)를 살펴보면, '소그룹의 체계적인 활동'이 3.56점으로 하위권(8위)에 위치했는데, 이는 성도들의 소그룹의 니즈(needs)를 교회가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했음을 의미하고 있다.
- ▶ 소그룹의 체계적인 활동 만족도를 2012년과 비교하면 3.78점에서 3.56점으로 하락한 점이 눈에 띈다.

[그림] 자신의 출석교회 항목별 만족도 (5점 만점 평균, 개신교인, 점)



[그림] 소그룹의 체계적 활동 만족도 (교회출석자, 긍정률, 5점 만점 평균, 2012 vs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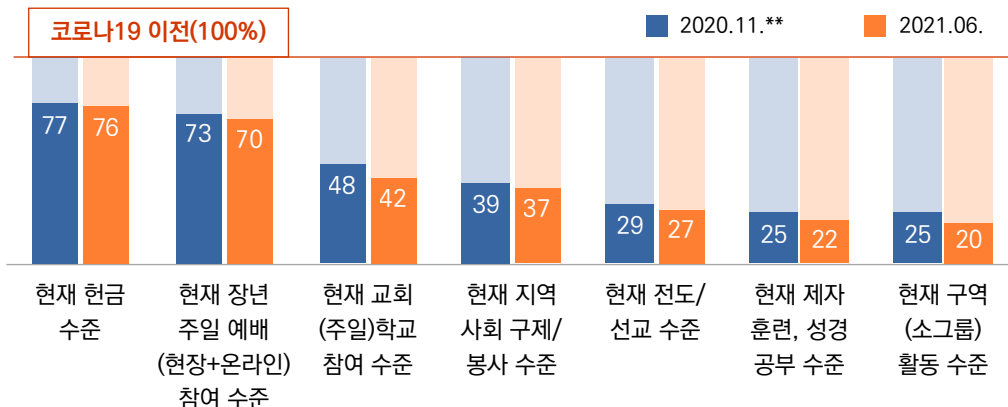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한국기독교 분석 리포트' 2018.07.02. (전국 개신교인 1,000명, 온라인 조사, 2017. 10-12월)

02

코로나 시대, 소그룹 활동 점점 줄고 있어...

- ▶ 2021년 6월에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이후 사역변화 정도' 조사를 보면 코로나19 이전을 100%로 가정했을 때, 항목별로 많게는 약 80%에서 적게는 30% 수준까지 줄어들었음을 볼 수 있다.
- ▶ 각 사역 중 소그룹 활동 변화를 살펴보면, 제시한 7개 항목 중 코로나19 이전 대비 활동률이 가장 낮았는데, 이는 코로나19 이후 한국교회 소그룹 활동의 급격한 위축 현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림] 코로나19 이후 사역변화 정도(코로나19 이전을 100%로 가정, 목회자 대상)



*자료 출처 : 예장통합교단/목회데이터연구소/한국기독교언론포럼, 2021.09.13., 코로나 19 이후 한국교회 추적조사(교단 소속 담임목사 891명, 모바일조사, 20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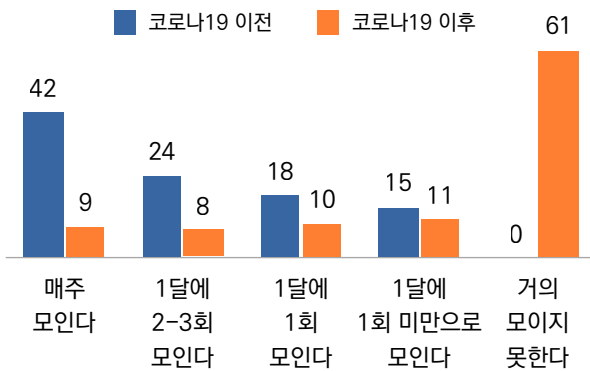
**2020.11.: 예장통합교단, 코로나19시대 한국교회 신생태계 조성 및 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조사 (전국 담임목사 480명, 2020.11)

- 총 600명 목회자(담임+부목사)를 조사했으나, 여기서는 비교를 위해 담임목사 Data만 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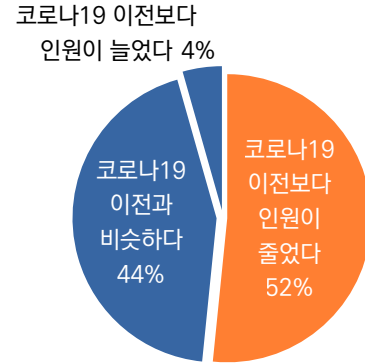
◎ 실제, 코로나19 이후 한국교회 절반 이상이 소그룹 멈췄다!

- ▶ 실제로 소그룹 활동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후 소그룹 모임 빈도 변화'를 질문했는데, '매주 모인다'는 비율이 코로나19 이전 42% → 코로나19 이후 9%로 크게 줄은 반면, '거의 모이지 못한다'는 코로나19 이후 61%로 나타나, 한국교회 절반 이상이 소그룹 활동을 멈춘 것으로 나타났다.
- ▶ 참석인원도 줄었는데 코로나 이전보다 '늘었다' 4%, '줄었다' 52%로 대체로 코로나19 이후에 소그룹 모임이 유지되더라도 참석인원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코로나 19 전후 소그룹 모임 빈도 변화(소그룹 활동자)
(단위 : %)



[그림] 코로나19 이후 소그룹 인원 변동 (소그룹 활동자)



*자료 출처 : 지구촌교회/한국소그룹목회연구원/목회데이터연구소, 2021.11.02., 한국교회 소그룹 실태 조사 결과 보고서 (만 19세 이상 교회출석 개신교인, 온라인조사, 2021. 09.06 ~ 2021. 09.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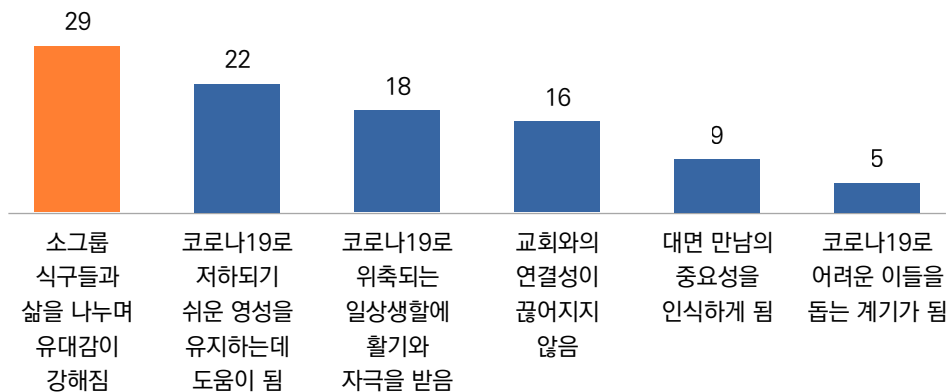
03

코로나 19 상황에서 소그룹의 유익함 1(개인/관계적측면) : 유대감 강화와 영성 유지에 도움!

- ▶ 코로나 상황에서 소그룹 모임이 주는 유익한 점을 보면 '소그룹 식구들과 삶을 나누며 유대감이 강해짐'이 29%, '코로나 19로 저하되기 쉬운 영성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됨'이 22%로 앞의 두 항목에 답한 비율이 50% 이상을 차지하였다. 이는 소그룹 모임이 코로나19로 위축되는 환경에서 구성원간 유대감 강화와 영성 유지에 도움이 됨을 보여 준다.

[그림] 코로나 상황 속에서 소그룹 모임의 유익한 점

(단위 : %)



*자료 출처 : 지구촌교회/한국소그룹목회연구원/목회데이터연구소, 2021.11.02., 한국교회 소그룹 실태 조사 결과 보고서 (만 19세 이상 교회출석 개신교인, 온라인조사, 2021. 09.06 ~ 2021. 09.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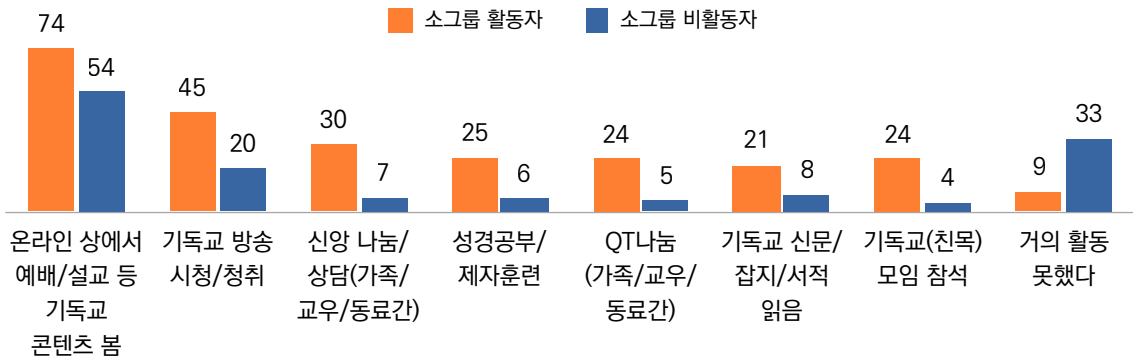
◎ 소그룹의 유익함 2(개인신앙)

: 소그룹 활동자가 비활동자보다 기본 신앙 지표 월등히 높아!

- ▶ 이번 조사 결과, 소그룹 활동자와 비활동자간에 교회생활과 신앙생활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개인신앙 생활에 있어서 지난 1주일 간 신앙 활동에 대해, 소그룹 활동자가 비활동자에 비해 모든 항목에서 2~4배 가량 높았다.

[그림] 지난 1주간 신앙 활동 내용 (중복응답)

(단위 : %)



*자료 출처 : 지구촌교회/한국소그룹목회연구원/목회데이터연구소, 2021.11.02., 한국교회 소그룹 실태 조사 결과 보고서 (만 19세 이상 교회출석 개신교인, 온라인조사, 2021. 09.06 ~ 2021. 09.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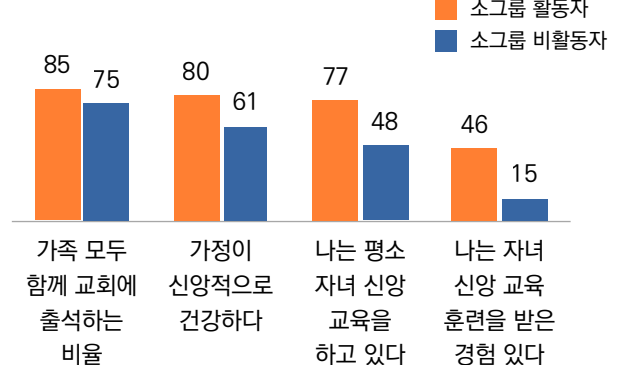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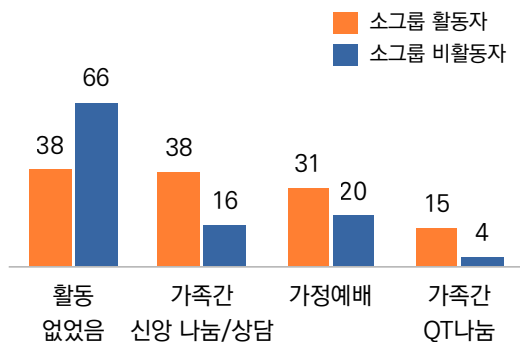
◎ 소그룹의 유익함 3(가정신앙)

: 소그룹 활동, 가정 신앙지표 상승으로 이어져!

- ▶ 지난 1주간 가족 간 신앙활동 교류를 한 비율이 소그룹 활동자는 62%, 비활동자는 34%로 소그룹 활동자가 비활동자보다 두 배 가까이 높게 가족간 신앙교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그룹 활동이 가정 신앙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 ▶ 특히 가족 간 신앙나눔은 두 그룹간 2배 이상, QT나눔은 3배 이상 차이를 보이는데, 소그룹 활동자의 경우 가족 간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하는 것으로 보아 가족 간 친밀도, 만족도가 비활동자보다 더 높다고 추정할 수 있다.
- ▶ 고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교회 출석 부모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가정신앙과 관련 소그룹 활동여부별로 분석한 결과, 모든 지표에서 소그룹 활동자가 비활동자보다 가정 신앙 지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넘버즈 95호 10p 참조)

[그림] 지난 1주간 가족간 신앙적 교류 활동 (중복응답, %)

[그림] 정기적 소그룹 활동 여부별 주요 가정 신앙 지표** (매우 + 약간 그렇다 비율, %)



*자료 출처 : 지구촌교회/한국소그룹목회연구원/목회데이터연구소, 2021.11.02., 한국교회 소그룹 실태 조사 결과 보고서 (만 19세 이상 교회출석 개신교인, 온라인조사, 2021. 09.06 ~ 2021. 09.24)

**자료 출처 : 한국IFCJ 가정의 힘, '가정신앙 및 자녀 신앙 교육에 관한 조사', 2021.05.06. (전국 5세~고등학생 자녀를 둔 교회 출석 개신교인, 1,500명, 온라인조사, 자연클리서치, 2021.04.05.-04.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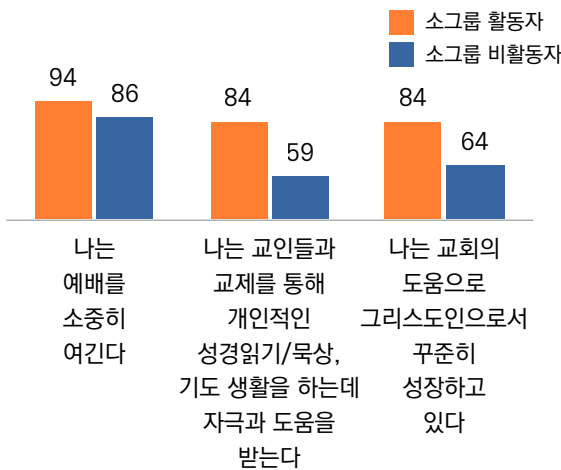
**4점정도 질문임.

◎ 소그룹의 유익함 4(교회차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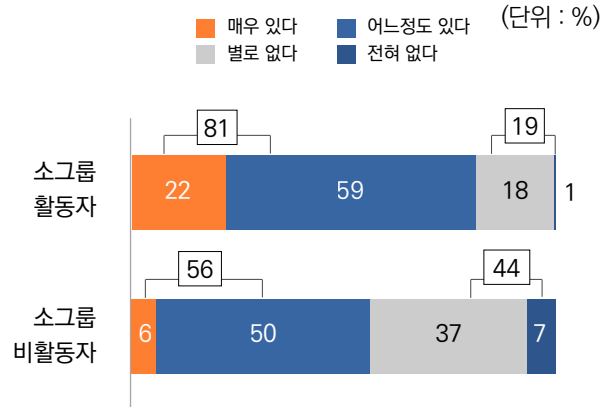
: 소그룹 활동자, 보다 더 교회 중심적! 적극적!

- ▶ 교회생활과 관련, '교회 예배를 소중히 여김', '교인들을 통해 신앙생활에 자극과 도움을 받음', '교회의 도움으로 성장함' 등 세가지 측면 모두 소그룹 활동자가 비활동자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긍정률을 보였다.
- ▶ 또 신앙성장을 위한 교회의 양육 프로그램 참여의향을 물었는데, 소그룹 활동자의 의향률이 훨씬 높았다.
- ▶ 이는 소그룹 활동자가 비활동자보다 좀 더 교회 중심적이고, 관계에 적극적임을 보여준다.

[그림] 교회생활에 대한 인식** (매우+약간 그렇다 비율, %)



[그림] 신앙성장을 위한 교회의 양육 프로그램 참여의향 (단위 : %)



*자료 출처 : 지구촌교회/한국소그룹목회연구원/목회데이터연구소, 2021.11.02., 한국교회 소그룹 실태 조사 결과 보고서 (만 19세 이상 교회출석 개신교인, 온라인조사, 2021. 09.06 ~ 2021. 09.24)

** 4점 척도 질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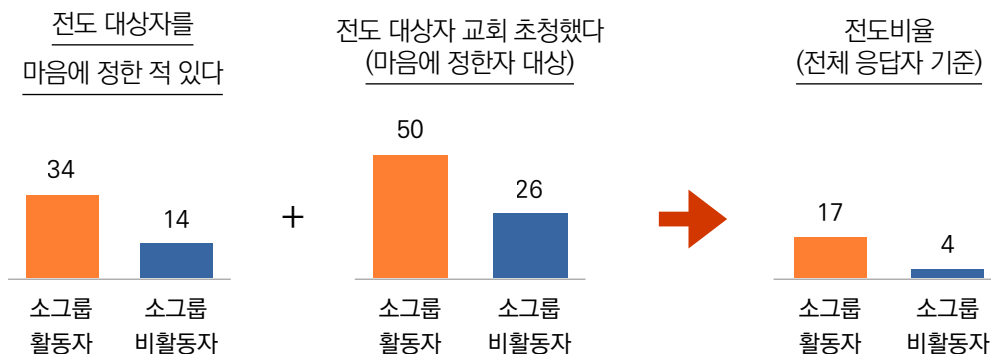
◎ 소그룹 모임의 유익함 5(전도영역)

: 코로나19 이후 전도활동에서 두 그룹간 가장 큰 차이를 보여

- ▶ 코로나19 이후 전도대상자를 마음에 정했는지에 대해 소그룹 활동자 34%, 비활동자 14%로 소그룹 활동자가 비활동자보다 월등히 높았으며, 마음에 정한 자가 그 전도대상자를 교회로 초대한 비율은 활동자 50%, 비활동자 26%로 활동자가 더 많았다.
- ▶ 종합적으로 코로나19 이후 전도 대상자를 최종적으로 교회에 초대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 기준 소그룹 활동자 17%, 비활동자 4%로 활동자가 비활동자 대비 무려 4배가 넘게 전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코로나19 이후 전도 실태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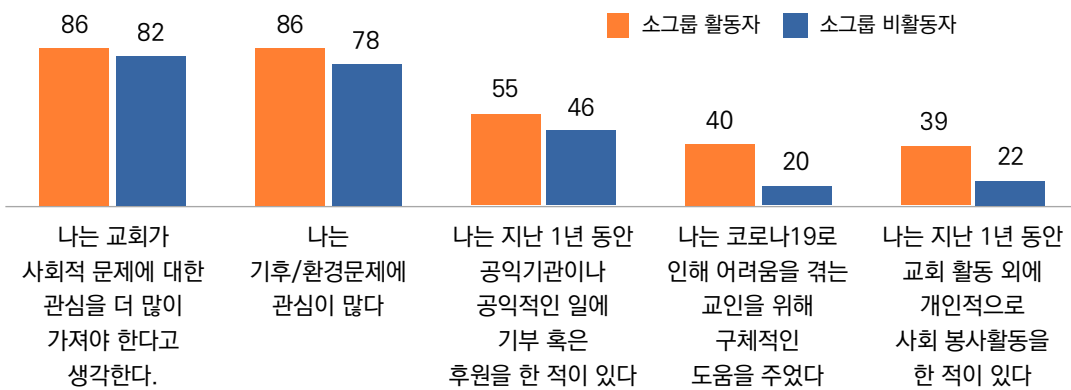
*자료 출처 : 지구촌교회/한국소그룹목회연구원/목회데이터연구소, 2021.11.02., 한국교회 소그룹 실태 조사 결과 보고서 (만 19세 이상 교회출석 개신교인, 온라인조사, 2021. 09.06 ~ 2021. 09.24)

◎ 소그룹 모임의 유익함 6(사회인식/참여)

: 소그룹 활동, 높은 사회문제 인식 및 참여율 연결돼!

- ▶ 신앙과 관련 없는 사회 문제 인식에 대해서도 물어보았는데, 교회의 사회문제에 대한 관여인식, 기후환경 관심도 등에서 소그룹활동자가 비활동자보다 문제 인식이 더 높았다.
- ▶ 또 참여적인 측면에서도 기부율, 교인을 위한 도움 제공, 사회봉사활동 등 참여율도 소그룹 활동자 그룹에서 더 높았다.
- ▶ 소그룹 활동자의 경우 사회적 이슈에 대해 단순 문제를 아는 수준에서 머무르지 않고 상대적으로 더 높은 사회 참여율을 보여주고 있어, 보다 건강한 시민의식을 갖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림] 개신교인으로서 사회적 인식 및 역할(매우+약간 그렇다 비율, %)



*자료 출처 : 지구촌교회/한국소그룹목회연구원/목회데이터연구소, 2021.11.02., 한국교회 소그룹 실태 조사 결과 보고서 (만 19세 이상 교회출석 개신교인, 온라인조사, 2021. 09.06 ~ 2021. 09.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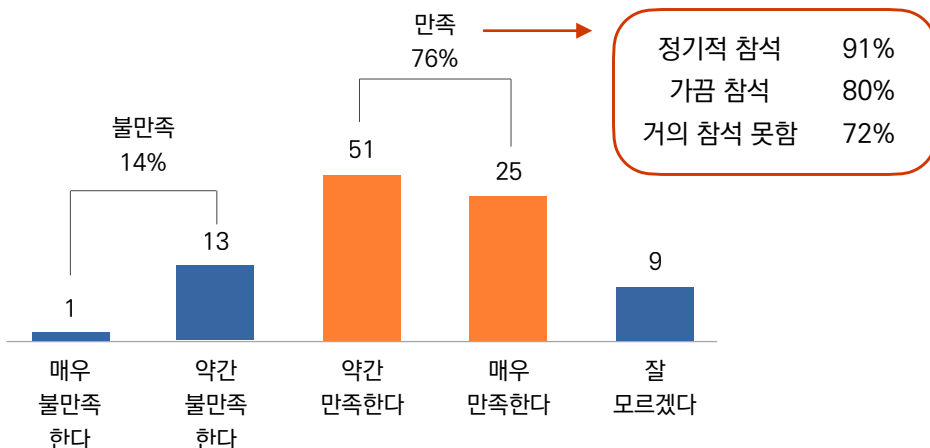
** 4점 척도 질문임

◎ 소그룹 정기적 활동자, 만족도 91%

- ▶ 코로나19 이후 한국교회 소그룹 활동이 크게 위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나타난대로 소그룹 활동이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유익함을 끼치고 있는데, 실제 소그룹 활동자들은 크게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기적 참석자의 만족도는 91%에 달하고 있다.

[그림] 현재 소그룹 만족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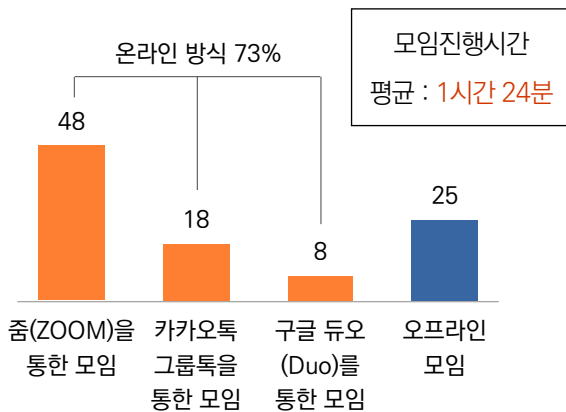
*자료 출처 : 지구촌교회/한국소그룹목회연구원/목회데이터연구소, 2021.11.02., 한국교회 소그룹 실태 조사 결과 보고서 (만 19세 이상 교회출석 개신교인, 온라인조사, 2021. 09.06 ~ 2021. 09.24)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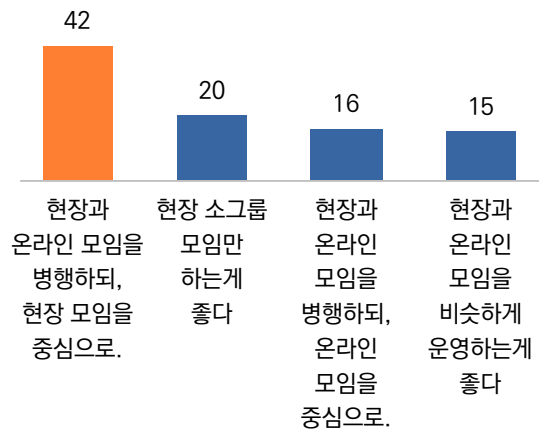
현재 소그룹 방식 : 온라인 73%, - 향후 현장모임 재개시 온오프라인 병행 선호!

- ▶ 현재 소그룹 방식은 73%가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모임 진행시간은 평균 1시간 24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 ▶ 앞으로 코로나가 종식되고 현장 모임 재개 시 희망하는 모임 방식으로 42%가 ‘현장과 온라인 모임을 병행하되, 현장모임을 중심으로 하는 게 좋다’고 답했고, ‘현장 소그룹 모임만 하는 게 좋다’는 20%, ‘현장과 온라인 모임을 병행하되, 온라인 모임을 중심으로 하는 게 좋다’는 응답은 16%를 차지해, 전체적으로 온오프라인 병행 선호도가 높았다.
- ▶ 이를 현장모임 중심과 온라인모임 중심, 두 가지로 합산하면, 현장 62%, 온라인 31%로 현장 모임 선호도가 높았다.

[그림] 현재 소그룹 모임 방식 (소그룹 참석자, %)



[그림] 현장 소그룹 모임 재개시 희망하는 모임 방식 (소그룹 활동자 대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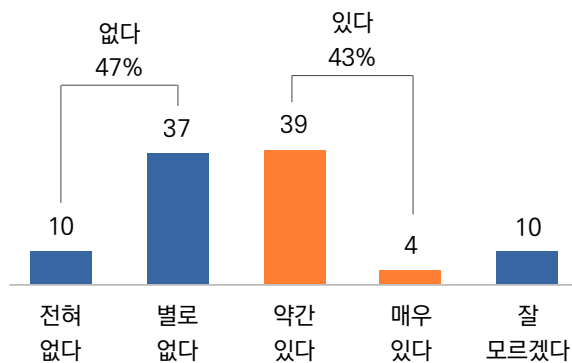
*자료 출처 : 지구촌교회/한국소그룹목회연구원/목회데이터연구소, 2021.11.02., 한국교회 소그룹 실태 조사 결과 보고서 (만 19세 이상 교회출석 개신교인, 온라인조사, 2021. 09.06 ~ 2021. 09.24)
**합계가 100%를 넘는 것은 통계적인 Rounding Error 임.

◎ 소그룹 비활동자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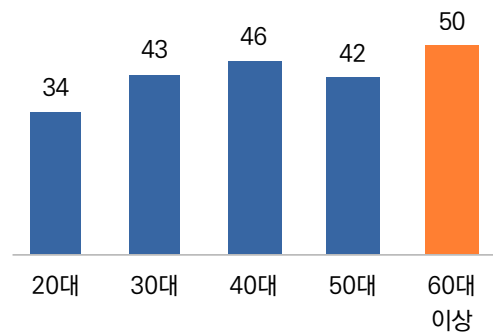
60대 이상 고령층, ‘향후 소그룹 참여하고 싶다’ 50%

- ▶ 현재 소그룹 비활동자 43%가 향후 소그룹 참석 의향을 밝히고 있는데, 그 중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상대적으로 의향률이 높은 특성을 보였다.

[그림] 향후 소그룹 모임 참석 의향 (소그룹 비활동자, %)



[그림] 향후 소그룹 모임 참석 의향 “있다”(매우+약간) (소그룹 비활동자, 연령별, %)



*자료 출처 : 지구촌교회/한국소그룹목회연구원/목회데이터연구소, 2021.11.02., 한국교회 소그룹 실태 조사 결과 보고서 (만 19세 이상 교회출석 개신교인, 온라인조사, 2021. 09.06 ~ 2021. 09.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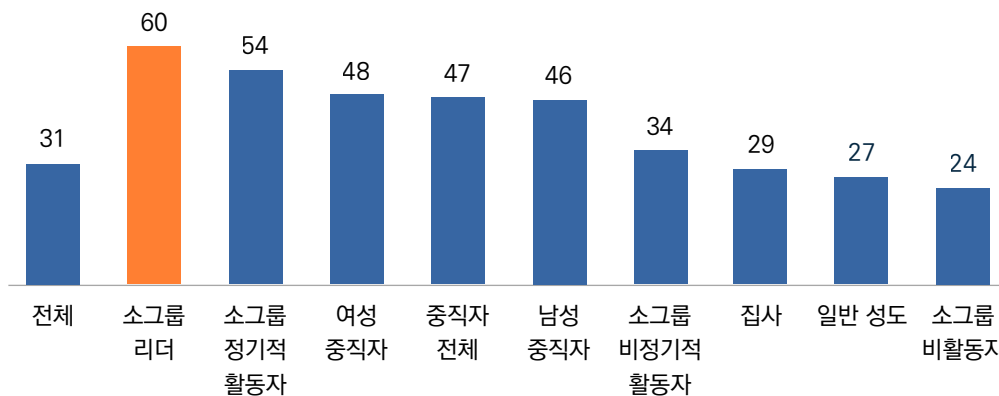
05

교회내 신앙수준이 가장 높은 그룹 : 소그룹리더 > 소그룹 정기적 활동자 > 중직자

- ▶ 앞에서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교회 내 신앙수준이 가장 높은 그룹이 어떤 그룹인지 분석해 보았다. 교인들을 총 9개 그룹으로 나누어 분석 대상으로 삼았고, 신앙수준 분석을 위해 다음의 4개 항목 결과를 사용했다. 즉 '코로나19 이전 대비 양적 신앙생활 수준(증가했다)', '코로나19 이전 대비 질적 신앙 수준(깊어졌다)', '신앙생활과 세상생활의 일치 정도(매우 일치)', '주관적 신앙단계(4단계)' 등이다.
- ▶ 이 4개 항목의 긍정응답 그룹(신앙단계는 신앙수준이 가장 높은 4단계 응답자)을 모두 합하여 「신앙수준 상위자」로 정의하고 집계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31%로 나타났다. 즉 본 분석에서는 31%의 교인들을 '교회 내 신앙수준 상위 그룹'으로 간주하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 ▶ 앞에서 제시한 9개 그룹별로 신앙수준 상위자가 얼마나 속해있는지 분석한 결과 9개 그룹 중 '소그룹 리더 그룹'에서 신앙수준 상위 비율이 6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소그룹 정기적 활동자' 그룹 54%였다. 반면 '중직자' 그룹은 남녀 큰 차이없이 비슷한 수준의 40% 중후반대 비율로 3위권이었다.
- ▶ 이상의 분석을 종합해보면, 교회 내 신앙수준은 '소그룹 리더' 그룹에서 가장 높았는데, 이는 중직자보다도 높은 수치였다. 중직자의 신앙수준은 소그룹 정기적 활동자(54%)보다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그림] 교회 내 그룹별 신앙수준 상위자 비율

(단위 : %)



*자료 출처 : 지주총교회/한국소그룹목회연구원/목회데이터연구소, 2021.11.02., 한국교회 소그룹 실태 조사 결과 보고서 (만 19세 이상 교회출석 개신교인, 온라인조사, 2021. 09.06 ~ 2021. 09.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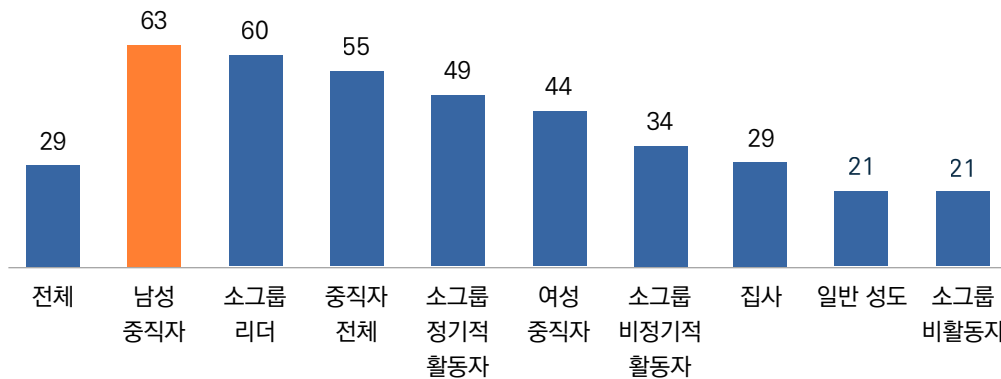
** 신앙수준 상위자 기준 = '코로나 이전보다 양적 신앙생활 늘어남' + '코로나 이전보다 질적 신앙수준 깊어짐' + '신앙생활과 세상생활 매우 일치' + '신앙단계 4단계'

◎ 교회 충성도가 가장 높은 그룹, 남성 중직자!

- ▶ 이번에는 동일한 교회 내 9개 그룹에 대해 교회 충성도를 분석해 보았다. 이 분석에 사용된 기준 항목은 '십일조 생활(매월 1/10 이상 헌금)', '코로나19 종식 후 교회출석 예상(비슷+더자주)', '교회의 도움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함(그렇다)' 등 총 3개 항목이다. 이 3개 항목의 긍정응답 그룹을 모두 합하여 「교회충성도 상위자」로 정의하고 집계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29%로 나타났다. 본 분석에서는 29%의 교인들을 '교회 내 충성도 상위 그룹'으로 간주하여 앞에서의 신앙수준이 가장 높은 그룹과 동일하게 분석을 진행하였다.
- ▶ 각 그룹별로 교회 충성도 상위자가 얼마나 속해있는지 분석한 결과, 9개 그룹 중 '남성 중직자' 그룹에서 충성도 상위자 비율이 6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앞에서의 신앙수준 상위 그룹 1위가 소그룹 리더였는데 그 결과와 약간 다른 결과이다. 다음으로 '소그룹 리더'에서 교회 충성도 상위 비율이 60%로 높았다.
- ▶ 앞서 신앙수준 분석과 종합해 볼 때, 전반적으로 '소그룹 리더'가 신앙수준과 교회 충성도에서 모두 상위에 위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교회 내 그룹별 교회 충성도 상위자 비율

(단위 : %)



*자료 출처 : 지구촌교회/한국소그룹목회연구원/목회데이터연구소, 2021.11.02., 한국교회 소그룹 실태 조사 결과 보고서 (만 19세 이상 교회출석 개신교인, 온라인조사, 2021. 09.06 ~ 2021. 09.24)

*교회 충성그룹 상위자 기준 = '매월 수입의 1/10 이상 십일조 생활' & '코로나 종식 후 교회 출석 비슷 또는 더 자주' & '교회의 도움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고 있음(그렇다)'

한국교회에서 소그룹이 새롭게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10~2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사실 한국 교회는 이미 오래전부터 세계 어느 나라보다 소그룹이 발달해 왔다. 여의도순복음교회의 성장 요인을 분석할 때 조용기 목사님의 설교, 치유 은사, 성령 운동을 언급하지만 초기 급성장을 넘어서 새로운 성장의 동력원이 된 것은 '구역'이었다는 분석이 있다.¹⁾ 여의도순복음교회가 조용기 목사라는 걸출한 목회자의 개인 플레이에서 구역이라는 팀플레이로 전환했을 때 교회 재도약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구역은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만 국한되지 않고 한국교회 전반적으로 중요한 목회 방법이었다. 필자의 기억으로도 1980년대 교회 주일 저녁예배 때 구역장이 일어나 이번 주 구역 예배 때 몇 명이 참석했는지 보고했던 기억이 있다. 그만큼 목회에서 구역 관리가 목회자의 주된 관심사였다.

요즘 한국교회에 구역을 대체한 소그룹들이 등장했다. 이름도 셀, 순, 다락방, 목장, 가정교회 등 다양하다. 외국의 소그룹 이론이 소개되고 그 모델이 도입되면서 기존의 소그룹에서 변신하려는 노력들이 있다. 왜 이런 노력들이 나타났을까? 소그룹이 일찍 발달하고 교회의 근간이 된지 오래되었고, 세계 신학계가 주목했던 구역 조직을 갖고 있는 한국교회에서 소그룹이 새롭게 관심을 받고 다양한 변신을 꿈꾸는 이유가 무엇일까?

크게 두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소그룹 목회의 지향성, 철학의 문제이다. 소그룹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목적을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기존 구역 조직이 목회적 돌봄과 전도를 주요 기능으로 했는데 이것이 더 이상 유효하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반성에서 나왔다. 구역에서는 구역장이 구역원을 세심하게 살펴서 문제가 있을 경우 즉각 목회자에게 보고해서 목회자가 대처하게끔 하는 것이 전통적인 구역 사역의 흐름인데, 개인주의 심화, 바쁜 현대생활 등으로 인해서 이러한 사역 흐름이 원활하지 않게 되었다. 현대인의 라이프스타일이 구역에서 원활한 돌봄 사역의 걸림돌이 된다는 문제점에 봉착

한 것이다. 또한 현대인의 종교에 대한 무관심과 교회 이미지 저하로 인해서 전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에서 기존의 구역 모델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구역의 목적을 재설정하고 그에 따라 구역의 구조와 기능을 재편성해야 한다는 의식들이 소그룹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낳게 한 것이다.

둘째는 좀 더 원초적인 이유이지만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소그룹은 일단 모이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기존 구역 조직은 주로 여성들이 평일 낮에 가정에서 모이는 조직이었다. 부부중심으로 가정 구조가 바뀌고, 직장생활을 하는 여성이 늘었고, 자기 집을 개방하기 꺼려하는 경향이 강한 상황에서 기존 구역 운영 방식은 사람들을 모으는데 어려움이 있다. 사람들이 모이지 않으니 소그룹이 성립하지 않고 소그룹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없었다. 그래서 교인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소그룹 내용과 구조,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현재 한국교회는 절반 이상의 소그룹이 중단된 상태에 있다. 이번 넘버즈 보고서에서 보듯이 코로나 시대에 소그룹은 외로움과 단절감 속에 있는 교인들로 하여금 유대감을 강하게 하며, 영성을 유지하고 위축되기 쉬운 일상생활에 활기와 자극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그룹 활동자와 비활동자 간에 신앙 지표들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활동자의 경우 개인 신앙 뿐 아니라 교회활동, 가정신앙, 자녀신앙 교육으로까지 긍정적 신앙생활의 패턴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심지어 소그룹 활동자에게서 건강한 시민의식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보이기도 한다. 또 실제로 코로나 이전의 소그룹 활동이 코로나 이후에도 줄지 않고 유지하는 교회일수록 현재 교회가 어려움이 없고, 코로나 종식 후에도 교인수가 더 증가할 것이라는 조사결과도 있다.(코로나 추적조사, 예정통합, 2021.06.)

이렇듯 현 코로나 상황에서 소그룹의 유익함이 크게 나타나고, 앞에서 언급한 대로 소그룹 관심도가 점차

1) 목회아카이브, '순복음교회와 구역(2)'(<https://haniin0207.tistory.com/494>)

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어, 코로나 시대에 한국교회에 가장 긍정적이고 결정적인 역할 기능이 바로 소그룹이라 판단되어, 우리 연구소는 '2022년 한국교회 키워드'로 소그룹을 선정하게 된 것이다.

현재 온라인예배를 드리는 계층을 보면, 30-40대 연령층이 가장 많은데, 이들이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현장 목회자들은 온라인 예배자들이 현장 예배로 오지 못하는 데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비대면 시대에 온라인예배가 하나의 예배로 자리잡은 상황에서 온라인 예배자들의 신앙을 유지시키고, 교회 공동체 안으로 유인하기 위해서는 소그룹이 매개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문제는 어떻게 소그룹을 활성화할 것인가인데 각 교회의 상황에서 해답이 간단치 않다. 소그룹을 주된 사역으로 해오지 않은 교회의 경우 교회 전체 시스템을 수정해야 하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

상세한 전략까지는 아니지만 성공적인 소그룹 정착을 위한 몇 가지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교회가 지향해야 할 소그룹의 정체성 혹은 목적에 대한 명확한 설정이 필요하다.

둘째, 소그룹 성공의 절대적인 변수는 소그룹 리더이다. 따라서 소그룹 리더를 얼마나 전략적으로 잘 양육하고 현장에 투입하고 또 실행에 대한 피드백을 하느냐가 소그룹 성공의 열쇠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 교회의 영적, 물적, 인적 자원의 충분한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현대인의 개인주의적 특성과 사회적 관계 맺기의 성향을 잘 분석해서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우리 교회만의 효과적인 수단(콘텐츠, 운영방식 등)을 찾을 필요가 있다.

모쪼록 소그룹을 활동을 통해 한국교회에 긍정적인 사례가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2022년이 되길 기대한다.